학교 주인은 바로 나

인천새말초 '2016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개최

인천새말초등학교(교장 안승자)에서는 지난 11월 22일 어학실 4층 협의회실에서 학생·학부모·교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새말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는 '행복한 새말 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학교구성원이 학교 교육의 주인은 나라는 인식을 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특히, 이번 대 토론회는 6모둠으로 나눠 원탁 토론 형식으로 다자간 토론형식으로 진행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동등하고 평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소주제로는 학교 특색사업, 인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현장학습, 학생자치활동, 창의적체험활동, 체육 활동 등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 분야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대토론회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학생들의 솔직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행복한 새말 교육을 만들기 위한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우리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안승자 교장은 "교육은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이야기를 수렴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분께서 학교 교육에 관심이 있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학생들도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배우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 됐으며 제시된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예술 어렵다는 선입관 버렸어요"

인천만수초, 문화예술드림학교 교육과정 연계 공연관람활동

인천만수초등학교(교장 박미자) 5, 6학년 학생들은 지난 11월 25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서구문화회관에서 공연을 관람했다. 만수초는 문화예술드림학교로 지정돼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예술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번 공연관람도 이에 하나로 진행됐다. 그뿐만 아니라 서구문화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트갤러리에 전시된 사진도 함께 관람했다.

관람한 공연은 넌버벌 퍼포먼스 플라잉(flying)이다. 넌버벌 퍼포먼스란 즐거리가 없는 비언어적 공연으로 정해진 줄거리와 대사 없이 리듬, 비트, 스텝만으로 무대를 이끄는 공연이다. 일정한 줄거리나 악보 없이 도발적이고 폭발적인 리듬, 마임, 춤 등으로 구성되며, 주변의 모든 것이 악기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비언어 넌버벌 퍼포먼스는 대사가 없으므로 언어장벽이 없고, 오케스트라 공연이나 오페라 등과 달리 배경지식이 없어도 학생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이다.

공연관람을 마친 학생들은 "너무도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으며, 무대의 배우와 관객이 모두 하나 돼 함께 즐기는 무대였다"고 답했다. 특히나 "예술하면 어렵고 재미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학교에서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예술활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선입관을 버리게 됐다"고 대답했다.

앞으로도 만수초등학교에서는 예술드림학교로서 학생들의 숨은 끼와 재능을 발견하고, 예술을 통한 인성교육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안용섭 기자 ays@

성희롱 예방 교직원이 솔선수범해야

인천신석초, 교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 통합 연수

인천신석초등학교(교장 김일영)는 11월 23일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의 하나로 교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 통합 연수를 실시했다.

교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 통합 연수는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인천신석초등학교 및 인천신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교직원과 교육감 소속 근로자 57명을 대상으로 신누리방에서 실시됐으며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도하려는 방안도 모색해보는 시간이 됐다.

연수에 참석했던 한 교사는 "교직원은 학생들에게 성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성희롱·성매매·성폭력에 대해 잘 알고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에게 관련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이런 연수가 더 유익한 것 같습니다"며 소감을 밝혔다.

연수를 담당한 강사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의 예방뿐 아니라 만일의 사태 때 실제 도움이 될 만한 대처방안과 구체적 절차를 공유하고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상담사를 하며 겪었던 여러 사례, 성범죄와 관련된 통계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했고, 교직원들은 이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일영 교장은 "이번 연수가 교직원들에게 성희롱·성매매·성폭력이 될 수 있는 언행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학생 지도에도 좋은 밑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연탄! 그 따뜻함에 감동하다

인천송천고,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실시

인천 송천고등학교에서는 지난 11월 19일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은 송천고등학교 개교 이후 6년째 실시되고 있는 봉사활동으로 학생들이 기부한 돈으로 연탄을 구매하고 그 연탄을 직접 배달하는 봉사활동이다.

봉사활동은 오전 9시 40분부터 1학년 팀과 2학년 팀으로 나누어 인천광역시 남구 노적산로 76 주변 일대에서 실시됐다.

2학년 팀은 각 가정에 들어가서 연탄을 집 한쪽에 쌓아놓는 역할을 맡았고 1학년 팀은 밑에서부터 연탄을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학생들은 할머니가 홀로 사는 집에서는 연탄을 나르고 쌓는 학생들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으며 연탄 200장을 쌓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친구들과 함께하고, 지금 쌓는 연탄으로 할머니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생각을 하니 절로 힘이 났다고 전했다.

연탄을 다 쌓은 후에는 연탄을 배달하는 일을 했다. 한 사람 당 2개씩 연탄을 들고 날랐는데, 연탄이 생각보다 무거워서 놀랐다. 게다가 집들이 전부 언덕 위에 있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생각은 '힘들다'가 아닌 '이 언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대신 우리가 연탄을 배달하게 되어 다행이다.'였다고 한다. 몸이 불편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연탄을 들고 가다가 자칫하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탄봉사가 끝난 뒤, 손과 얼굴에는 연탄 가루가 묻어있었고 땀이 식어서 추위도 느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봉사활동을 하기 전 연탄봉사를 한다고 해서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우리 근처에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고 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에게는 아직도 연탄이 필수품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연탄봉사를 통해 추위를 맞이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연탄을 드리고 학생들의 마음도 따뜻해져서 보람 깊은 봉사활동이었다고 전했다.

김현홍 학생기자 kimhyking1@daum.net

'나의 꿈, 나의 일 이야기'

서운중, 진로체험 활동 실시

서운중학교(교장 박만실)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목적으로 내일을 여는 진로체험 '나의 꿈, 나의 일 이야기'를 11월 22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서운중학교에서 2013년도부터 4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진로진학부 교육과정과 연계해 진행했으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벌였다.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해 30개의 전문직업인을 강사로 위촉했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 아나운서 외 10명(기상캐스터, 연극배우, 전래놀이사, 포토그래퍼, 레크레이션 MC, 성우, 쇼호스트, 뮤지컬배우, 이미지 메이킹, 만화가)의 강사를 지원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직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갖고, 전문가들의 삶의 경험에 관해 묻고 들으면서 학생들의 진로를 스스로 탐색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11개의 직업 중 만화가 수업을 들은 학생은 "오늘 나의 꿈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되, 직업선택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전문성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운중 가온누리 교육복지실은 앞으로도 진로활동실 라온제나와 꾸준히 연계해 직업체험과 진로체험 등 학교 안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안용섭 기자 ays@

사랑의 손맛을 전하다

연수고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진행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연수고등학교(교장 한승도)와 연수구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지정 사회복지기관인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센터장 최윤희)는 11월 26일 연수구 관내 저소득층 이웃들이 김장 부담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연수고등학교에서 진행된 나눔 실천 활동은 이웃을 돌아보고 봉사활동의 가치를 나누고자 교육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이 협력하여 진행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훈훈한 정과 희망을 만드는 계기가 되고자 진행했다.

연수고등학교 한승도 교장은 "이번 나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공동체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 최윤희 센터장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과 함께 하여 더욱 뜻 깊었던 나눔이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교육기관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